

2025.04.07.(월)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2025년 연간 이익 상향 조정

[출처] 하나증권 김록호 애널리스트

1Q25 Preview: 우려대비 선방

삼성전자의 25년 1분기 매출액은 76.4조원(YoY +6%, QoQ +1%), 영업이익은 5.4조원(YoY -19%, QoQ -18%)으로 전망. 영업이익 컨센서스 5.1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5조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우려되었던 것보다 양호한 이유는 DRAM 출하량의 선방과 MX 사업부의 플래그십 모델 효과 때문 DRAM 출하량은 당초 가이던스였던 하이싱글 감소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MX 부문은 갤럭시 S25 효과 및 효율적인 원가 운영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시현한 것으로 예상. DRAM과 NAND 출하는 전분기대비 각각 5%, 11% 하락했고, 가격은 9%, 15% 하락한 것으로 가정. 시스템 반도체 부문이 전분기대비 외형 감소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되었지만, 그 폭은 시장의 우려대비 선방할 것으로 예상

2Q25 이후 반도체 가격 상향 조정

25년 1분기의 메모리 관련 전방산업 수요는 예상대비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 스마트폰 채널 재고의 소진이 확인되고 있고, Deepseek 이후에 관련 수요들의 증가도 지속 언급되고 있음. 아울러 관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DRAM 출하 감소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한 이유로 보여짐 공급이 잘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물동량이 증가하며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DRAM, NAND 모두 25년 2분기부터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가정을 상향했고, 하반기의 상승폭 역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변경. 2025년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25.2조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할 전망. 메모리 부문의 이익 상향으로 인해 전사 영업이익 역시 36.5조원으로 기존 추정치대비 6% 상향.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해 MX 부문의 25년 2분기 이후 수익성을 하향 조정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익으로 방향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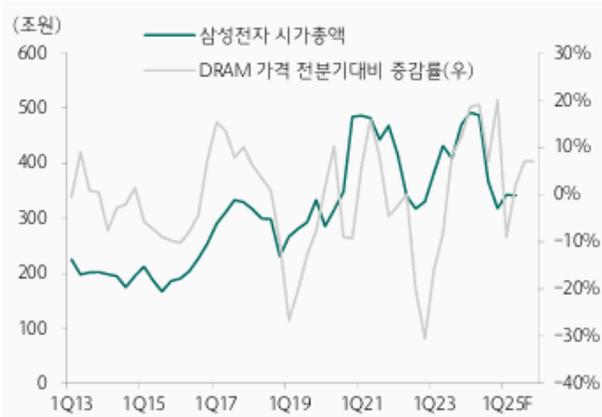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84,000원을 유지. 메모리 수급 밸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면서 가격 상승 전환 시기가 빨라진 부분이 긍정적.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1조원 내외로 전년대비 감익이 전망되었음. 25년 1분기 실적 프리뷰 또는 리뷰를 통해 컨센서스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증익으로 이익의 방향성이 바뀌게 됨. 2025년 영업이익의 상향으로 인해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 아울러 메모리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또한 동반 상향이 가능하기에 현재 PBR 0.9배는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수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변수가 부담이긴 하지만, 하반기 DRAM 수요는 세트 출하량보다는 대당 콘텐츠 증가가 주역.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PC, AI 서버 확대에 의해 견조한 수요를 확인할 것으로 판단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8,935.5	300,870.9	326,077.8	348,665.0
영업이익	6,567.0	32,726.0	36,465.7	44,632.6
세전이익	11,006.3	37,529.7	40,870.4	47,715.9
순이익	14,473.4	33,621.4	30,746.8	35,896.6
EPS	2,131	4,950	4,559	5,329
증감율	(73.55)	132.29	(7.90)	16.89
PER	36.84	10.75	12.63	10.81
PBR	1.51	0.92	0.94	0.88
EV/EBITDA	9.96	3.60	3.57	3.05
ROE	4.14	9.03	7.64	8.43
BPS	52,002	57,930	61,544	65,434
DPS	1,444	1,446	1,446	1,446

도표 7. DRAM 가격 전분기대비 증감률 vs 삼성전자 시가총액



자료: 삼성전자, 하나증권

도표 8. DRAM 영업이익 vs 삼성전자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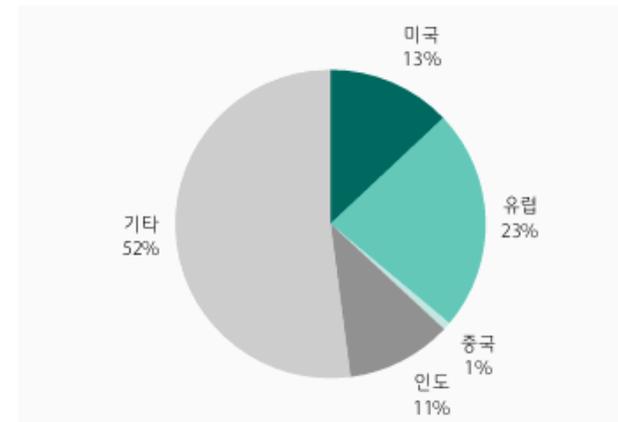
자료: 삼성전자, 하나증권

도표 9. 한국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vs 삼성전자 시가총액



자료: 무역통계, 하나증권

도표 10.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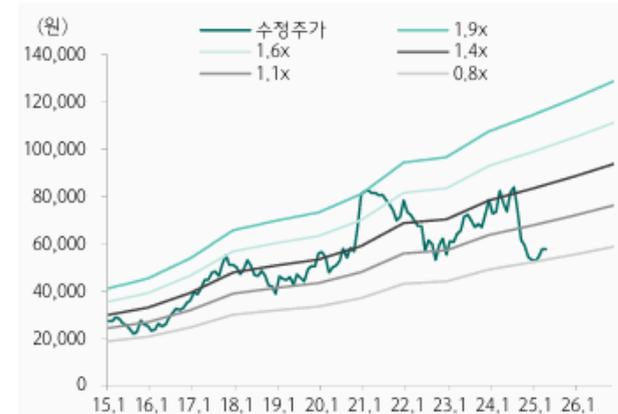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주: 2024년 판매량 기준

도표 11.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후 12개월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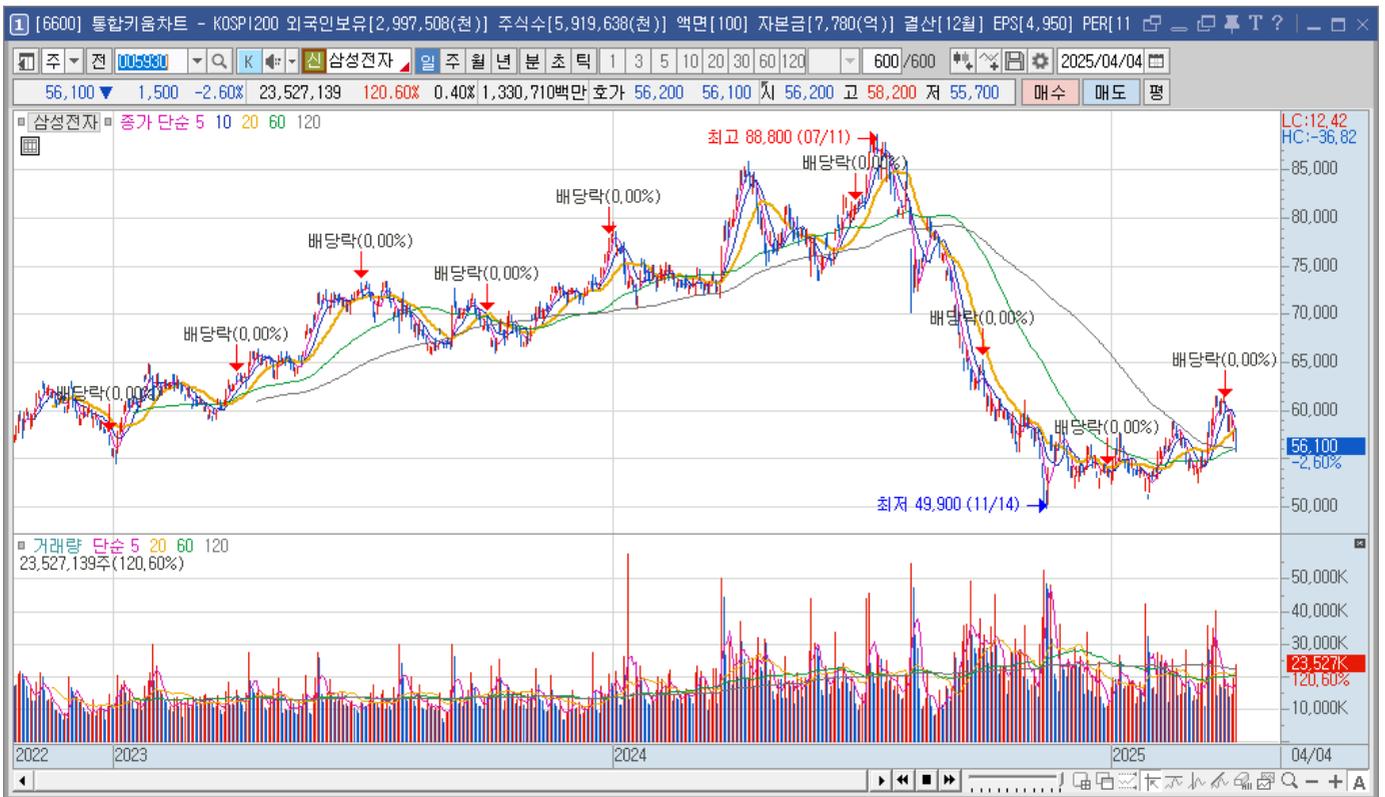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12. 12M Fwd PBR 밴드



자료: Wisefn, 하나증권



비나텍

1Q25 Pre : 분기가 지날수록 개선될 실적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규현 애널리스트

관세 때문에 늘렸지만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슈퍼캡, 수소 관심 종목으로 제시. 슈퍼캡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베트남에 거의 모든 Capa가 구축돼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베트남에 46%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베트남 공장 출하 물량 중 미국향 물량은 3% 미만으로 큰 영향은 없을 전망. 최종 사용자에게 직납하지 않고 대리점을 거치기 때문에 대리

점단에서의 수요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이제는 2분기부터 개선될 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1Q25 Pre: 외형은 성장하나 고정비 부담 영향 지속되며 적자전환 예상

[1분기 실적] 전사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49억원(+10.4%, 이하 YoY), -20억원(적자전환, OPM -13.2%) 전망. 슈퍼캡 외형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연료전지 소재·부품 외형은 기존 및 신규 샘플 대응 물량 증가가 지속되며 22억원(+88.8%)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2H24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신사업 관련 대규모 투자(건물 및 설비 투자, R&D 및 사업 개발 인력 확보 등)로 인한 고정비 부담 영향이 지속되며 적자전환 예상

[2025년 실적] 전사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718억원(+20.5%), 19억원(흑자전환, OPM +2.6%) 전망. 스마트 미터기(중국향 물량 회복, 유럽·대만향 물량 증가), 기존 고객사(데이터 센터 발전원) 수요 증가로 슈퍼캡 외형 583억원(+18.6%) 예상. 연료전지 소재·부품 외형은 상기 이유(샘플 대응 물량 증가)로 99억원(+33.4%) 기대. 연간 실적 흐름은 상저하고 전망. 고정비 부담 영향 지속에도 슈퍼캡 외형 증가하며 연간 흑자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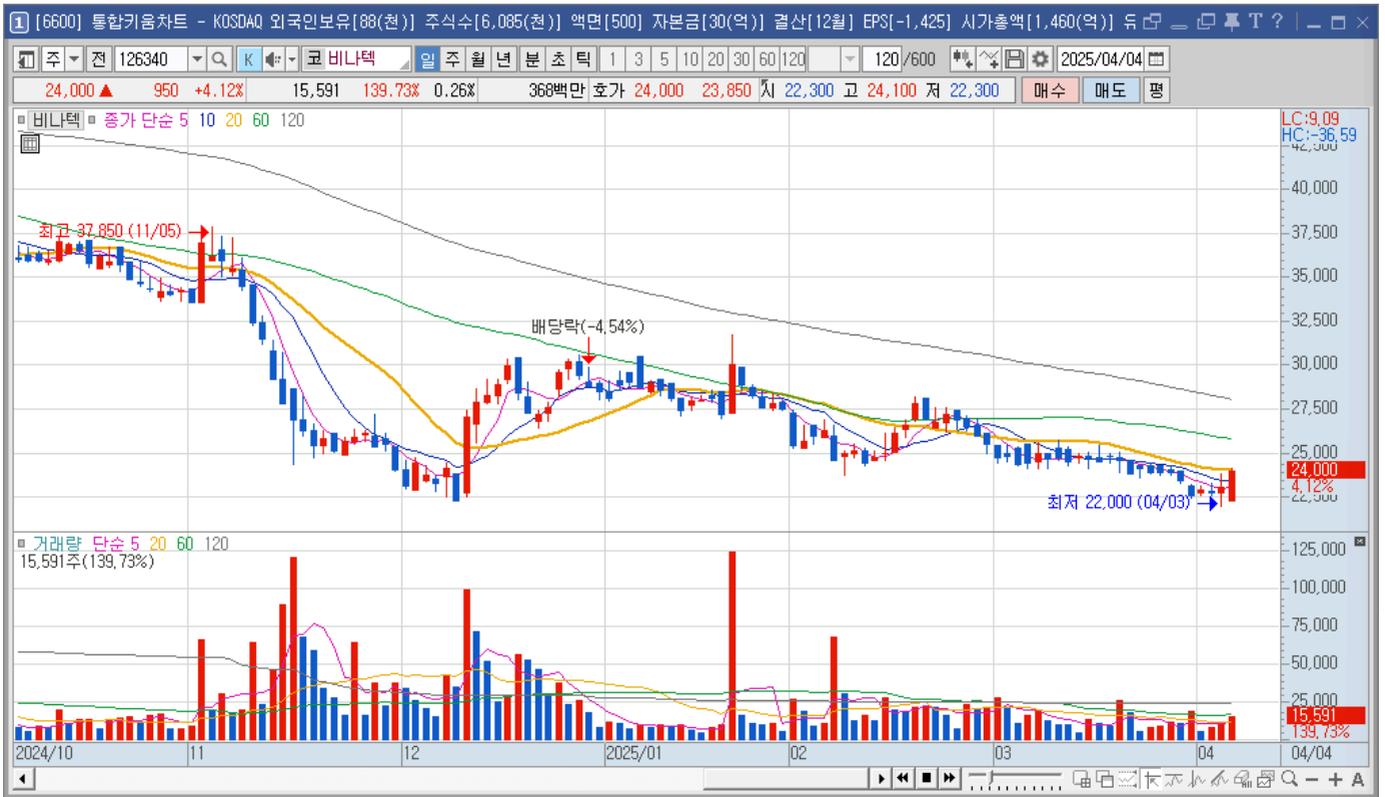
Valuation & Risk: 신사업 성과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SOTP 밸류에이션) '4.0만원' 유지. 신사업을 위해 집행한 대규모 투자가 성과를 보여야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 제거 가능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55.0	3.0	2.0	142.5	3.2	4.4	36.0	-
2024	59.6	(8.1)	(9.1)	-	(12.2)	2.2	-	-
2025F	71.8	1.9	(0.4)	-	(0.4)	1.8	15.0	-
2026F	97.2	4.9	1.8	84.7	2.1	1.9	11.1	-
2027F	129.3	12.9	7.7	21.1	8.6	1.8	8.1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추정치 상향

[출처] IBK투자증권 김유혁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으로 상향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실적추정치 상향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65,000원에서 80,000원으로 23.1%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EPS 3,338원에, Target P/E 24.0배를 적용했다. 26년까지 뚜렷한 실적개선과 멀티플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현재 주가 대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추정치 상향

동사의 영업이익을 2025년 708억원(흑전 YoY), 2026년 867억원(+22.4% YoY)으로 전망하며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7.1%, 22.0% 상향한다. 이는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이하 "베문") 추정실적 상향에 기인한다. 블랙핑크는 현재 발표된 월드투어 일정(18회, 회당 5.7만명)만으로 모객 수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부 스타디움/돔 공연으로 직전투어 대비 회당 모객 수가 2배 확대되었고, 4Q25 및 1H26 일정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모객 수 가정을 기존 20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상향했다. 베문은 올해 1월부터 진행중인 첫 월드투어에서 44만명을 모객하며 강한 팬덤수요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26년 공연모객 수 가정을 상향했고, 앨범발매 가정도 올해 1회에서 2회로 확대 반영했다. IBKS Rating 모델에 따르면, 베문은 현재 저연차 그룹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IP로 평가되는 만큼 26년에도 유의미한 성장이 전망된다.

1Q25 Preview: 영업이익 23억원, 1분기 실적이 저점

동사의 1Q25 실적은 매출액 1,045억원(+19.7% YoY, +0.4% QoQ), 영업이익 25억원(흑전 YoY, +146.4% QoQ, OPM 2.4%)으로 시장기대치(47억원)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앨범매출은 트레저 신보(72만장), 베문 4Q24 신보 이연 효과로 YoY, QoQ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매출은 2NE1(9회), 베문(9회), 트레저(3회) 월드투어 총 21회차, 22만명 모객실적이 반영되며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베문 영상 콘텐츠 제작확대에 따른 원가증가로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569	365	628	670	800
영업이익	87	-21	71	87	113
세전이익	93	29	85	103	132
지배주주순이익	61	19	56	68	87
EPS(원)	3,311	999	3,015	3,661	4,694
증가율(%)	81.2	-69.8	202.0	21.4	28.2
영업이익률(%)	15.3	-5.8	11.3	13.0	14.1
순이익률(%)	13.5	5.5	10.4	11.8	12.6
ROE(%)	14.0	3.9	11.0	12.0	13.6
PER	15.4	45.9	20.3	16.7	13.0
PBR	2.0	1.8	2.1	1.9	1.7
EV/EBITDA	9.2	95.9	12.1	9.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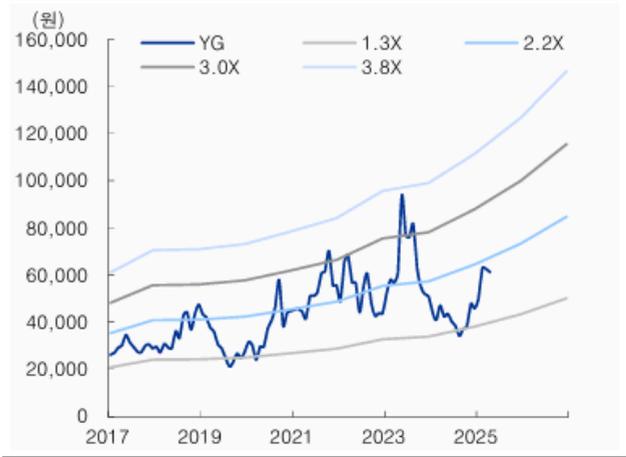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12M Fwd P/E 밴드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12M Fwd P/B 밴드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JYP Ent.

1Q25 프리뷰 :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출처] 유안타증권 이환욱 애널리스트

1Q25 preview: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1Q25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은 1,077억원(-21.1% yoy), 영업이익은 194억원(-42.3%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1,258억원, 영업이익: 234억원)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하회할 전망이다. 아티스트 IP 활동성 저하 및 역기저 효과에 따른 YoY 외형 역성장 예상되며, 신인 IP 데뷔 비용 및 주력 IP 스트레이키즈 인세 상승과 일회성('더딴따라' 제작비 잔여분) 비용까지 반영된 영향으로 YoY 영업이익 하락폭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부문별로 [앨범] 총 앨범 판매량은 150만장(엔믹스 70만장, 킥플립 35만장, 예지 솔로 30만장 등) 수준으로 매출액 188억원(-39.0% yoy) 전망되며, [음원] 매출액도 전년동기대비 -5.0% 소폭의 역성장 예상된다. 글로벌 음원 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음원 매출 기반영된 영향이다. [공연] 총 모객수는 약 45만명(데이스 15만, 트와이스 10만, 스트레이키즈 8만 등) 수준으로 매출액 214억원(-27.3% yoy)을 추정한다.

단기 실적 보단 업황 센터 회복 및 개선점에 주목해야

플랫폼 비즈니스 및 기타 신사업 프로젝트 확대에 의한 단기 실적 부진 불가피한 상황이나, 최근 가파른 가격 조정으로 주가에는 충분히 선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센터 개선에 따른 하반기 주가 회복 가시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글로벌 투어 실적 성장 및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조와 美 트럼프 관세 정책 수혜 그리고 2H25~1H26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되는 중 본토 활동 재개까지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자회사 블루개러지의 플랫폼 통합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고, MD 내재화 부분 역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0원 유지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1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08	-21.1	-45.9	126	-14.4
영업이익	19	-42.3	-47.5	23	-17.1
세전계속사업이익	20	-49.3	-53.8	25	-20.2
지배순이익	15	-53.4	-43.0	26	-42.8
영업이익률 (%)	18.0	-6.6 %pt	-0.5 %pt	18.6	-0.6 %pt
지배순이익률 (%)	13.7	-9.5 %pt	+0.7 %pt	20.5	-6.8 %pt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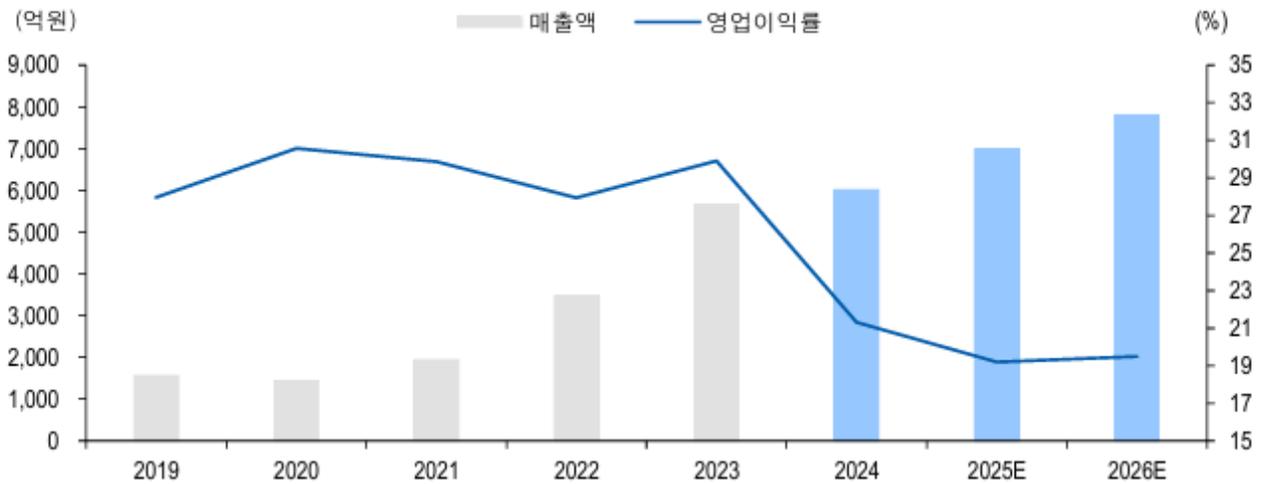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567	602	700	778
영업이익	169	128	134	152
지배순이익	105	98	102	115
PER	33.6	23.1	21.3	18.9
PBR	8.4	4.4	3.5	3.0
EV/EBITDA	18.3	14.4	12.5	10.6
ROE	30.4	22.4	19.3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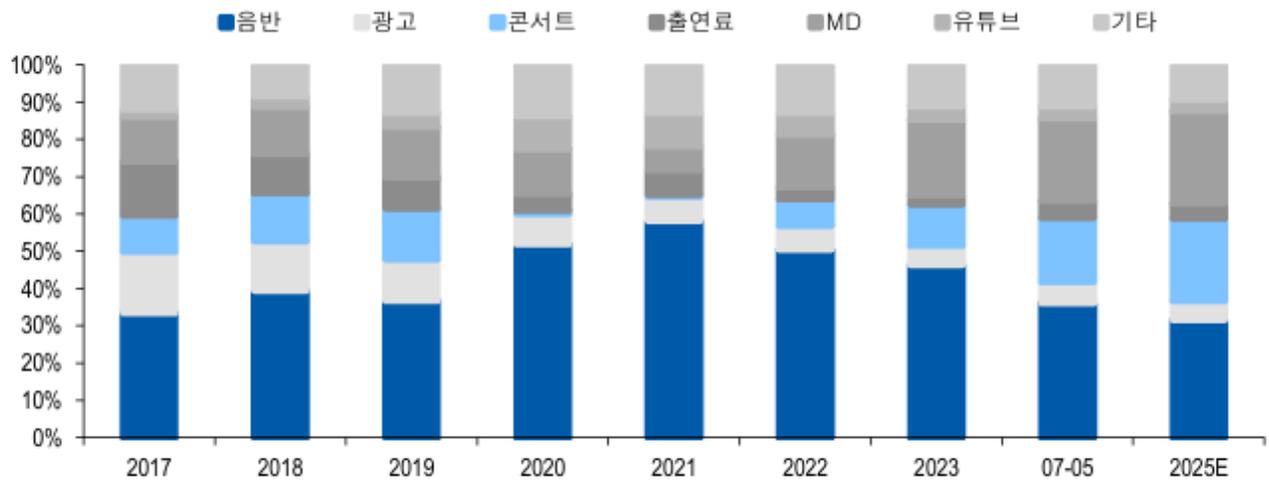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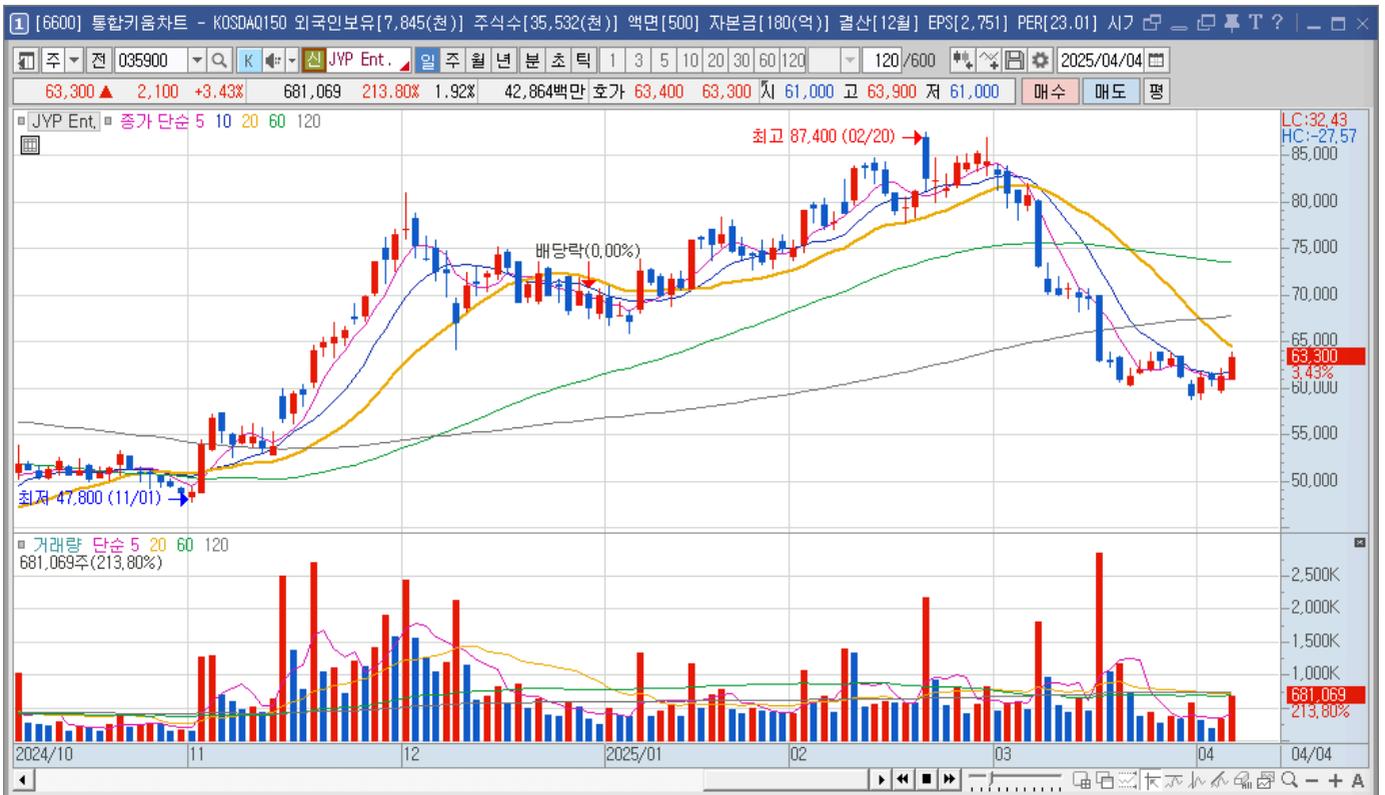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도별/매출원별 매출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누스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급락

[출처] NH투자증권 백준기 애널리스트

동사 주력 생산 기지 소재한 인도네시아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32% 부과해 주가 급락

4월 3일(한국 시간) 기준으로 동사 주가는 전일 대비 19.9% 하락

4월 2일, 미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예상을 상회. 인도네시아에 32%, 캄보디아에는 49%의 상호관세율이 각각 적용. 동사는 인도네시아, 중국에 각

각 매트리스, 비매트리스 생산기지 보유 중. 캄보디아 공장 증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된 캄보디아 잠재 exposure도 반영되면서 주가 급락

영향 분석

1) 단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은 DO(Domestic Import)에 한정
예상 대비 높은 관세 부과는 실적에 부정적이긴 하나,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분에 해당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동사가 현재 인도네시아 생산기지에서 생산하는 연 6,000억원 규모의 매트리스 제품이 북미에서 판매 중. 아마존이 사입하는 DI(Direct Import)의 규모는 4,500억원, 동사 북미 창고에서 판매되는 DO(Domestic Import)가 1,500억원으로 구성. DI에 적용되는 관세는 아마존 측이, DO에 적용되는 관세는 동사가 부담. 인도네시아에 32%의 상호관세 실제 부과 시 동사 관세 비용은 연간 350억원 ~4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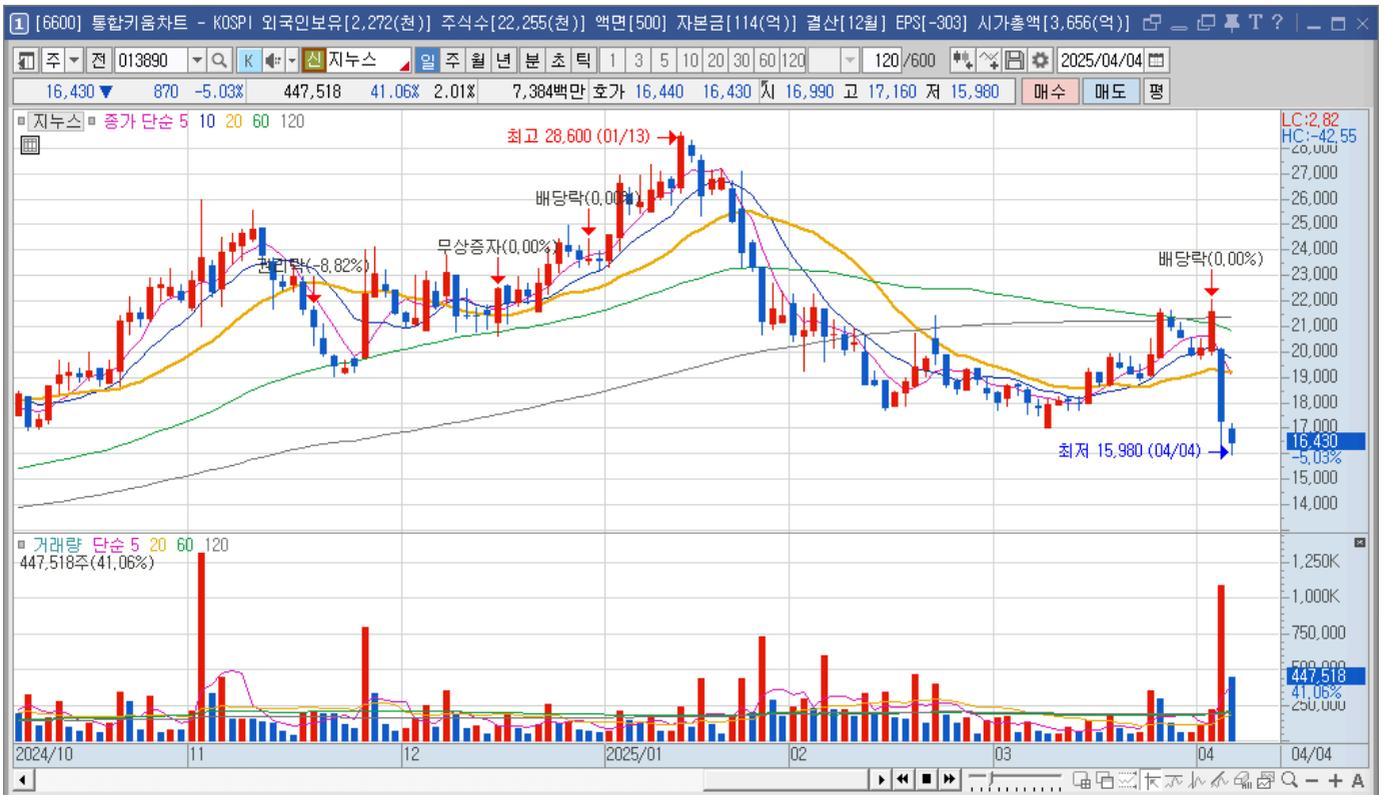
지누스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제품 판매 가격 인상 및 DO 비중 조절. 예상되는 판가 인상폭은 10~30%로 추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실질 관세 영향은 상기 예상치보다 대폭 줄어들 것

2) 여전히 제품 경쟁력 보유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펀더멘털 개선 전망 유효

동사의 '매트리스 인 어 박스(매트리스를 압축해서 상자에 담아 배송할 수 있는 기술)'는 최근 여러 경쟁사가 벤치마킹해 유사한 제품을 선보임. 그러나 동사는 프레임, 토퍼 등까지 박스 배송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보유. 북미 내 온라인 주문을 통한 침대 박스 배송이 가능한 브랜드로 인지도를 제고. 여전히 아마존 내 매트리스 Top 10 제품 중 4~5개가 동사 제품

경쟁 제품 주요 생산기지 중 한 국가인 활용되는 멕시코에도 45% 이상의 높은 관세율 적용. 따라서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 것. 또한 협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주가 급락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반응

종합하면, 동사 제품 경쟁력은 지속 우위를 점할 것이며, 2분기 반덤핑 관세 유입 등까지 더해지며 동사 실적은 2025년 큰 폭의 턴어라운드 예상. 금일 상호 관세 부과로 주가 낙폭이 큰 상황이나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아마존 재고 소진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은 여전히 유효



SK하이닉스

차별화된 실적 흐름 지속 전망

[출처] 신한투자증권 김형태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연말까지 실적 우상향 지속 전망

1Q25 전방산업 재고 조정 영향 → 전분기대비 실적 둔화 불가피. 다만 경쟁사 대비 높은 고부가 제품 비중에 따라 우월한 수익성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 2Q25부터 메모리 가격 반등 본격화 기대. 1) 유통재고 Re-stocking 재개, 2) 고부가 서버 Rack 출하 확대, 3) PC 교체 수요 등으로 실적 우상향 기대감 유효. 연간 실적 추정치 조정 → 목표주가 상향

1Q25 Preview: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익성이 경쟁우위를 재차 증명

1Q25 매출 17.3조원, 영업이익 6.8조원으로 컨센서스(17.2조원, 6.5조원) 상회할 전망. 제품별 영업이익은 DRAM 6.9조원, NAND -445억원 추정. DRAM B/G(출하 용량 성장률) -11%, ASP(평균판매가격) +1%로 예상 부합. HBM이 차별화된 수익성(DRAM 영업이익률 51%)을 견인. NAND는 B/G -18%, ASP -13%로 기존 예상치(380억원) 하회할 것으로 추정

2025년 연간 매출 91.1조원, 영업이익 37.1조원으로 각각 7.6%, 11.3% 상향 조정. 현재 재고는 DRAM 7~8주, NAND 11~12주 수준으로 안정화 추정. 2월 이후 유통사들의 메모리 가격 인상 기조 확인. 현물 가격 반등 시작 → 2Q25 공급사들의 가격 협상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 연말까지 공급제약(전환투자, 가동률 조정) 지속되며 가격 상승세 유지될 전망. 메인스트림 전환에 따라 레거시 DRAM 비중 하반기 내 10% 미만으로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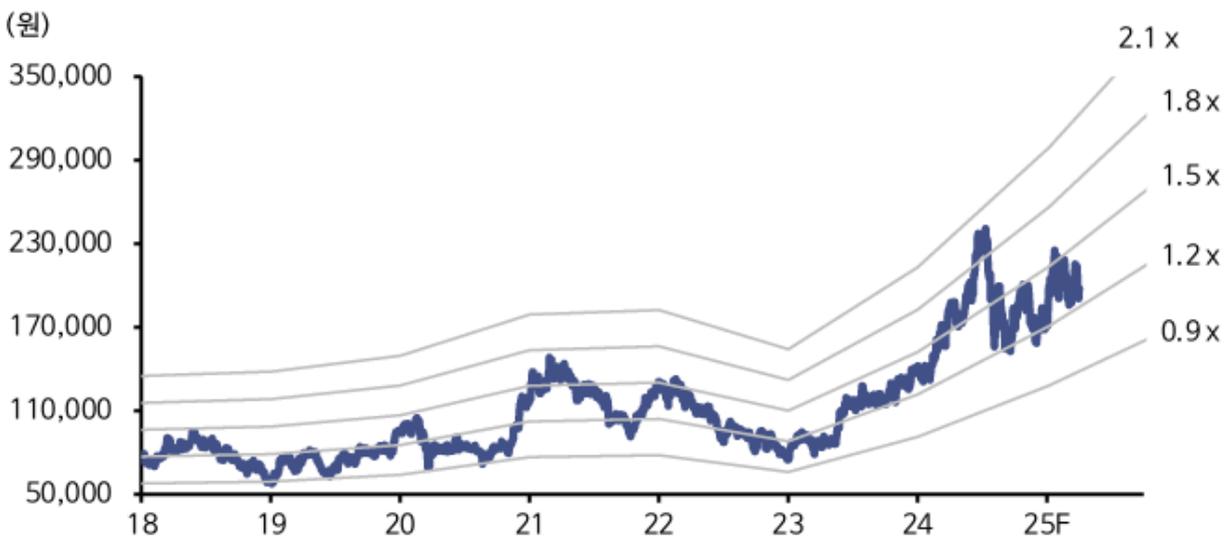
Valuation & Risk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0원으로 10.3% 상향. 2025년 예상 주당순자산가치(BPS) 141,792원,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 2.3배(밴드 상단) 적용. HBM 수요처 확산(GPU+ASIC)되는 가운데 하반기 차세대 HBM 조기 양산 기대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 업종 Top-pick으로 유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32,765.7	(7,730.3)	(9,112.4)	(11.3)	(15.6)	1.9	21.5	0.8
2024	66,193.0	23,467.3	19,788.7	6.4	31.1	1.7	3.9	1.3
2025F	91,109.7	37,096.4	29,607.5	4.9	33.4	1.4	2.8	0.8
2026F	106,333.6	44,977.8	35,723.6	4.0	29.5	1.0	1.9	0.8
2027F	102,407.4	42,376.8	33,793.7	4.3	21.8	0.8	1.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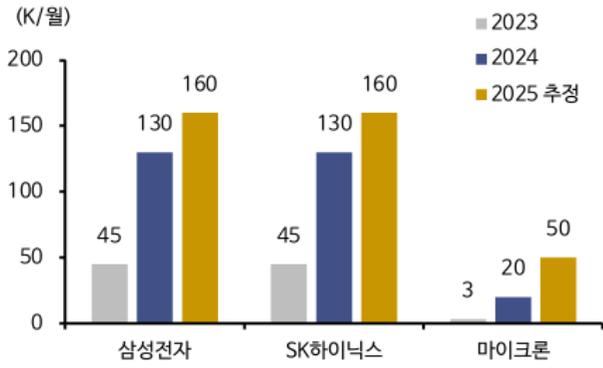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 P/B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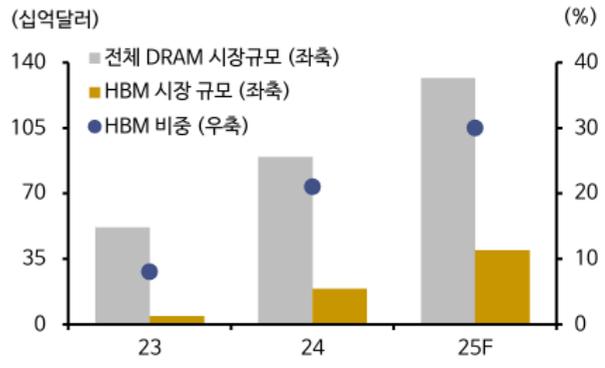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추정

메모리 3사 HBM 생산능력(Capa) 전망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DRAM 및 HBM 시장 규모 전망



자료: Trendforce, 신한투자증권 추정





LG씨엔에스

우려 속에서 찾는 기회

[출처] 유안타증권 이창영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66,000원, 투자의견 BUY,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2025년 예상 순이익 4,131억원에 Target P/E 15.5배를 적용. 동사와 기 상장된 국내 SI 기업들과의 차별점은, (1) 그룹 SI 기업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2) 가장 높은 ROE (3) 높은 외부 매출 비중, 다양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 적용 받아야 할 밸류에이션도 차별화될 것이란 의견임

우려 속에서 찾는 기회

[우려1: 관계사 실적 둔화=LG CNS 실적 악화] 2021~2024년 LG전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포함)의 매출액은 각각 CAGR 5.9%, 4.7%. 반면 동사의 이들 관계사 관련 매출액 CAGR은 각각 19.1%, 24.7%. 관계사 매출 성장률을 크게 상회

[우려2: 맥쿼리자산 21.5% 지분의 오버행 이슈] 큰 규모의 물량, 이미 충분한 수익 발생으로 시장에 직접 출회 가능성이 높지 않음

[우려3: 그룹 SI 기업으로서 자체 경쟁력에 의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 ① Cloud & AI: 다양한 업종/기업들의 클라우드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 2025년 이후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등 해외매출 확대 등 향후 AI/클라우드 MSP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 ② Smart Engineering: <스마트팩토리> 가전, 2차전지, 자동차 공장 구축 경험으로 조선, 방산 등 업종 확대 수혜. <스마트물류> 물류센터 로봇/SW 적용 확대, LG 에너지솔루션 북미공장 물류창고 자동화 등 지역 확대 수혜. <스마트시티>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진척에 따른 수주 모멘텀. ③ Digital Business Service: 동사 강점인 금융 및 공공,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업 확대로 플러스 성장 전환 전망. 3개 사업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매출액보다 수주잔고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름. 향후 실적 및 성장성은 계속 우상향 전망

1Q25 Preview

매출액 1조 1,453억원(YoY +7.0%), 영업이익 643억원(YoY +99.2%), 영업이익률 5.6% 예상. 1분기는 SI 시장의 최대 비수기이고, 3개 사업부문 모두 기 수주했거나 수주가 지속될 대형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2분기 및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률) 지속 상승 기대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1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145	7.0	-43.4		
영업이익	64	99.2	-67.9		
세전계속사업이익	63	211.0	-65.4		
지배순이익	54	342.1	-58.8		
영업이익률 (%)	5.6	+2.6 %pt	-4.3 %pt		
지배순이익률 (%)	4.7	+3.6 %pt	-1.8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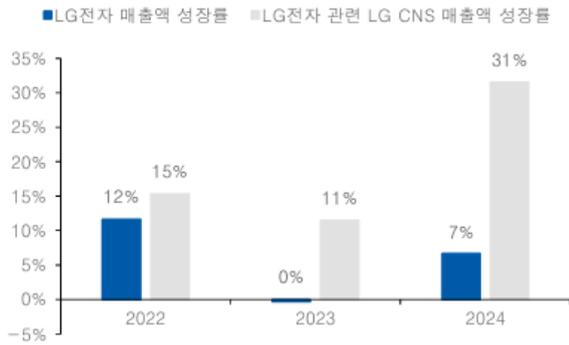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5,605	5,983	6,556	7,063
영업이익	464	513	566	634
지배순이익	332	365	413	468
PER	-	-	11.3	10.0
PBR	-	-	1.9	1.7
EV/EBITDA	-	-	6.0	5.1
ROE	19.0	18.3	18.3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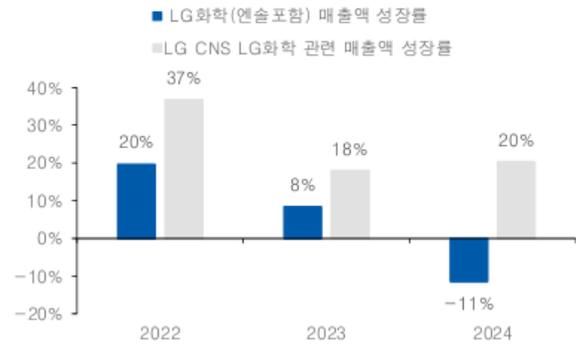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LG 전자 매출액 성장률 vs LG 전자 관련 LG CNS 매출액 성장률



자료: 각 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LG 화학 매출액 성장률 vs LG 화학 관련 LG CNS 매출액 성장률



자료: 각 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